



스물두번째 이야기

열정과 헌신의 열매

[선교사 선교현장⑦-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1973년에 베트남 북쪽 시골에서 태어난 Le Thi Huong Lien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현재 목사로 베트남교회 총회(북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BEE 프로그램을 알고 배운 후 BEE는 저의 열정이 되었으며, 현재 BEE의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 하이퐁 교회에서, 하노이 성경대학은 하노이 교회, 기엔안 교회, 하이퐁 교회, 도선 교회, 록디엔 교회에서 온 59명의 학생을 위해 (51명 참석) BEE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9명의 학생이 BE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운 BEE Korea의 김근식 선교사님과 Le Thi Huong Lien 사모님의 노력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베트남교회(북부) 총회장 Bui Van San 목사님과 총회 부회장 겸 하노이 성경대학 총장 Nguyen Huu Mac 목사님, 조문상 선교사님과 여러 목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은 장중하고 따뜻하게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업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울려드렸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타이응옌 교회에서도 가오방과 타이응옌에서 온 26명의 학생을 위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한 인도자는 Trieu Tien An 목사님, Trieu Phuc Tien 목사님, Ly Tai Cuong 목사님과 Bui Thi Nhan 사모님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지만 묵묵히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트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BEE를 계속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님께서 BEE 학생들을 부르셔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Tôi là Lê Thị Hương Liên, sinh năm 1973 tại một làng quê thuộc miền Bắc VN. Được thừa hưởng đức tin từ người mẹ tảo tần nên tôi sớm nhận được sự kêu gọi từ Chúa để bước vào chức vụ. Kết hôn với một Truyền đạo và nay là Ms Bùi Văn Triệu, thuộc Tổng Hội _ HTTL VN (miền Bắc). Tôi có đặc ân được trang bị qua chương trình Bee, và Bee đã trở thành niềm đam mê của tôi. Hiện nay tôi đang là giáo viên chtrinh Bee

Niềm vui như được vỡ òa khi mà gần 60 học viên từ nhiều nơi được gặp gỡ nhau tại một nơi, trong một ngày trọng đại. Ngày 10/7/2022, tại Hội Thánh Tin Lành Hải Phòng, Trường Thánh kinh Thần học Hà Nội -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miền Bắc) (HTTLVN-MB) đã tổ chức Lễ tốt nghiệp chương trình BEE cho 59 học viên (hiện diện 51) đến từ các Hội Thánh Tin Lành Lực Điện, Đồ Sơn, Hải Phòng, Kiến An và Hà Nội. Buổi lễ diễn ra một cách trang trọng và ấm cúng, với sự hiện diện của Mục sư Bùi Văn Sản - Hội trưởng HTTLVN-MB, Mục sư Nguyễn Hữu Mạc - Phó hội trưởng HTTLVN-MB kiêm Hiệu trưởng Trường Thánh kinh Thần học Hà Nội, Mục sư Tiến sỹ Moon Cho - Giám đốc chương trình BEE, cùng một số Mục sư trong Ban Trị Sự TH. Các học viên vô cùng hân hoan và tràn ngập lòng biết ơn Chúa vì việc học tập đã hoàn thành dù gặp khó khăn trong thời gian dịch bệnh COVID-19 diễn ra. Thành công ngày hôm nay có được không thể không nhắc đến các giảng viên đã tận tình giúp đỡ 59 học viên tham gia chương trình này trong hai năm qua, đó là thầy cô Kim Geun Sik là người đại diện cho Bee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cô Lê Thị Hương Liên. Trước đó, ngày 8/7 tại HT Tp Thái Nguyên cũng đã diễn ra lễ tốt nghiệp tương tự cho 26 học viên thuộc hai địa điểm của Cao Bằng và Thái Nguyên, do các Ms Triệu Tiên An, Triệu Phúc Tiến, Lý Tài Cương và cô Bùi Thị Nhân phụ trách. Dù trời mưa, đường đi quá vất vả nhưng mọi học viên cũng đã nô nức trở về cùng với người vợ của họ. Mỗi học viên rất trông đợi ngày đặc biệt này và những người vợ của họ cũng vậy. Bởi lẽ để có được ngày này không thể không kể đến công khó của những người vợ đã thầm lặng hỗ trợ đằng sau. Xin Chúa tiếp tục sử dụng chương trình BEE như một công cụ hữu hiệu cho việc môn đệ hóa và trang bị các lãnh đạo HT tại Việt Nam. Nguyên Chúa kêu gọi các học viên của lớp BEE tham gia tích cực trong công việc của nhà Ngài tại các HT địa phương để mở mang Vương Quốc, amen.

[글쓴이 리엔(Lien) 선교사]



20여년 전 조문상 선교사님으로부터 BEE 세미나를 접한 후, BEE의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인도자로 훈련받아 현재까지 많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2017년 3월 1일 BEE 파송 선교사가 되었으며, 가족으로는 남편 찌어우 목사 (북베트남 총회 부회장, 소수 종족 세미나 지원과 교재 인쇄 등 행정 지원으로 섬김), 딸 트영(총신대 교육대학원 재학), 아들 푸(음악대학원 재학)가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monotoon [모놀로그 인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인바이블
모노톤 일러스트

그렇게 마리아는 떠났고
석 달간 나는 미친놈이었다

3. 요셉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2:1~7

나사렛에서 출발한 그녀와의 긴 여행길.
만삭의 그녀를 나귀에 태우고
베들레헴을 향해 걷는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국 전체에 인구조사를 명하여
온 세상 사람에게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하였다.

끔찍한 악몽 같았던
여덟 달 전의 기억...
그녀는 나를 불러내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했다.

하늘이 노했다.
그만 거짓말 말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집 떠난 지 벌써 보름이니
지치고 힘들 만도 한데,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그녀는
말간 얼굴로 웃어 준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 뜻이 우리의 혼약보다 먼저이기에
말씀을 확증 받기 위해
친척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아무도 몰랐다.
배신감으로 내 심장이 솟덩이가 된 것을.
밤마다 울며
온 동네에 까발려 복수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사랑하는 그녀를
차마 파탄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고,
석 달간 나는 미친놈이었다.

그녀가 오면 이혼증서를 써 주고
조용히 끝낼 참이었다.
그게 내가 이 악몽에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였다.

그러던 어느 밤,
꿈을 꾸었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니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셨다.

다음날 그녀가 돌아왔고,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이유를 묻는 아들에겐
아기가 일찍 찾아왔다고 대답했다.
내가 죽일 놈 되는 편이 훨씬 나았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다행히
베들레헴 어귀에 들어섰다.

그녀가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고 한다.
걱정이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g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22년 하반기 OBA 및 심화 과정! 말씀과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2-2 하반기 OBA(온비아), 심화 과정					
	월	화	목	토	주일
오전		온라인 갈라디아서 9/6-10/25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9-12/19			온라인 교회사 2 9/17-11/26	
	대면 서빙고 201호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10/17-1/02				
오후	온라인 갈라디아서 9/5-10/31		온라인 갈라디아서 9/8-10/27		온라인 갈라디아서 9/4-10/30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9-12/19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22-12/15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8-12/18
	대면 서빙고 302호 성경연구방법 1 9/5-11/21				온라인 교리론 2 9/18-12/4

* 문의 전화 : 02-822-9480 (내선104)

3. 9월 17일(토) 6:30, 한동홀에서 대면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선교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